

대학생 데이트 커플의 애정표현행동

이 지 연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낭만적 사랑의 관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애정표현행동이 변화하는지, 애정표현행동이 사랑, 관계의 신뢰도 및 만족감 및 성격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인에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성과의 교제 경험이 있는 333 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교제기간에 따라 대부분의 애정표현행동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관계신뢰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애정표현행동은 사랑, 관계신뢰도와 만족도 그리고 외향성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셋째, 애정표현행동 중 이벤트와 선물, 그리고 사랑의 3요소와 성격특질 중 친화성과 안정성에서 성차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참가자의 발달적 특성, 관계의 변화와 안정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 연구를 토대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교제기간, 애정표현행동, 낭만적 사랑, 관계의 질, 성격, 성차.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사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일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우리들의 주된 관심을 끌어난 주제이다. 특히, 발달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청년기에 달성해야 할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이성과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것이다(김중술,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본격적으로 심리학의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로 말하자면, 지난 30년 동안 주로 서구에서 사랑에 관한 연구들을 해 왔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제시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관점은 다양한데(강진경, 최혜경, 1996), 가령 Murstein(1976)은 사랑을 보는 입장을 그 특징에 따라 판단, 감정 그리고 행동적 입장으로 분류했다. 판단으로 보는 입장에는 어떤 사람은 훌륭하다와 같은 판단이나 사랑을 태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감정으로 보는 입장은 사랑이 땀이 나거나 심장 박동의 변화와 같은 생리적 측면과 상관이라고 전제한다. 행동으로 보는 입장은 상대방의 욕구나 행동에 반응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반응에 초점을 둔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랑의 유형과 구조, 성인 애착, 애정관계 만족도 등을 다루어왔다(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Murstein(1976)의 유형에서 사랑을 판단이나 감정으로 보는 입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반면에,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처럼 사랑의 행동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살펴볼 때, 초기 개인의 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가 쇠퇴한 이후, 개인 내적인 측면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둘째, 행동은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개인의 내적인 특성에 비해 더 가변적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내적 특성보다 연구자의 관심을 덜 받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 이성 관계에서 애정표현의 행동적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애정표현행동이 사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줄 것이다. 더군다나, 시간에 따른 사랑의 변화가 애정표현행동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 요인과는 무관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애정표현행동이 관계의 질과 갖는 관련성을 알아봄으로써, 어떠한 애정표현이 관계의 질을 함양하는데 결정적인지 알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이성 관련 대인관계 문제를 다루는데 유익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애정표현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사랑의 지속기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른 대인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랑 역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는 애정표현행동의 변화가 한 몫 할 수 있다. 또한, 애정표현 행동이 사랑, 관계신뢰도 및 관계만족도와 같은 이성관계의 질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인들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교제기간과 사랑의 관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랑이 변할 수 있음을 4가지 측면 즉,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Triangular theory of love), 연인과 부부의

관계만족도, 대인관계에 관한 사회적 침투이론 그리고 이성 관계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사랑을 친밀감, 책임감, 열정 등 세 차원으로 정의한 Sternberg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 요소들의 변화를 밝혔다. 즉, 친밀감은 초기 꾸준히 증가하다가 점차 그 증가속도가 느려지고 마지막에는 감소했다. 책임감은 초기에는 가장 느린 속도로 증가하다가 관계가 장기화될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고 마지막에는 다소 감소하는 S곡선을 보였으며, 열정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후에 습관화로 인해 초기수준 이하로 감소한 다음 점차 회복했다.

이 외에, 18-64세 204명을 조사한 Acker와 Davis(1992) 연구의 경우, 열정은 여성에 한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친밀감은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게 더 컸으며, 미혼자에게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친밀감 수준이 감소했다. 책임감은 연령과 교제기간이 길수록 컸으며,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에게 더 컸다. 그리고 Hazan과 Shaver(1994)의 연구에서는 남녀가 만난 지 2년을 전후해 대뇌에 항체가 생겨 사랑의 화학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달라짐을 보였다.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한국에 적용한 연구를 보면,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친밀감 수준이 높았지만, 결혼기간이 길수록 열정은 감소했다(강진경, 최혜경, 1996). 또한, 결혼 5년까지는 친밀감이 책임감보다 컸으나 그 이후에는 그 반대가 되었다(강진경, 최혜경, 2001;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정민아, 2004), 친밀감이 가장 높고 열정이 그 다음으로 높았으며 책임감

이 가장 낮았다.

두 번째 접근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로 결혼과 관련해서 관계 만족도의 변화를 연구했다. 전반적으로 결혼 만족도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자녀출산이후 크게 감소했다가 자녀 출가 후에 다시 증가하는 U자형의 패턴을 보인다. 자녀출산 후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에 따른 긴장보다는 결혼기간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더 크다(정현숙, 1996; White & Booth, 1986).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의 만족에 관한 연구는 이것이 관계의 유지나 파탄에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몇몇 연구(Berg & McQuinn, 1986; Lloyd, Cate & Henton, 1984)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만족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데이트에서의 만족은 관계에 대한 개입과 투자 및 애정(Hendrick, 1988; Hendrick & Hendrick, 1988; Lund, 1985), 갈등(Surra & Longstreth, 1990), 자기개방 및 자기존중감(Hendrick & Hendrick, 1988; Lin & Rusbult, 1995)과 관련이 있었다.

세 번째는 시간 경과에 따라 대인관계의 형성과 발전 및 퇴화과정을 다룬 연구들로, 특히 사회적 침투이론(Altman & Taylor, 1973)이 잘 알려져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두 사람간의 관계는 발전하면서 보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므로, 양자가 점차 많은 양의 행동을 교환하게 되고 교환하는 행동의 질적 특성도 긴밀한 내용으로 변한다. 초기에는 피상적인 수준의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약간의 감정이 교환되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기간이 경과하면서 두 사람은 보다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거리감도 줄어 사적인 영역까지 공개하는 관계로 발전한다(장휘숙, 2004).

사회적 침투이론에 근거하여 Rubin(1970)은

182쌍을 설문조사하고 6개월 후 재조사하였다. 그 결과, 80% 이상의 쌍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 60%는 관계가 더 돈독해졌고, 19%는 변화가 없었으며, 나머지 21%는 관계가 약해졌다고 응답했다. 한덕웅(1985)은 한국대학생을 이용하여 14개월간의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교기간의 경과에 따라 두 사람이 교류한 행동이 변화되었으며 변화의 크기는 후기보다 초기에 더 컸다. 또한, 친교기간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및 부정적 행동 모두 증가했고 자기노출의 수준도 높아졌다.

넷째, 진화심리학의 배우자 선택가설도 시간에 따른 관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Buss, 2004). 이 가설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배우자 지키기'라는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남성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보석과 같은 선물을 하고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식으로 자원을 과시하거나,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등 사랑과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 후에는 배우자에게 이전과 같은 노력을 투자하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이성 간의 낭만적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사랑의 행동적 측면에서 애정표현행동의 변화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파트너와의 첫 성교는 일생에서 매우 두드러진 사건이며(Harvey, Canary & Morgan, 1986), 상대방에 대한 몰입을 증가시키는 사건이었다(Baxter & Bullis, 1986). 또 다른 연구에서는 관계의 질에 따라 첫 경험의 효과가 다른데, 관계의 질이 높을 때 성교가 관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ate, Long, Angera & Draper,

1993).

시간에 따른 애정표현행동의 변화를 다룬 국내연구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은정(2001)은 이성 관계에서 보이는 보살핌 행동을 연구했고, 권희경, 장재홍과 권영민(2005)은 결혼 전 이성 관계를 촉진 혹은 방해하는 8가지 행동 요소들을 평가하는 애정관계 행동척도를 개발했다. 이런 연구들은 애정표현행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랑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봐주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애정표현행동과 관계의 질

애정표현행동이란 관계에 대한 애정과 관심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Villard와 Whipple(1976)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애정과 관심에 대한 의사소통행동이 관계표현의 수단으로, 모든 관계가 1)시간 혹은 금전의 투자, 2)표현수단의 교환, 3)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라는 3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환되는 수단은 애정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일 수 있다. 애정표현수단으로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지만, 경제적인 표현수단은 미소나 포옹, 애정 어린 이야기 등보다는 덜 직접적이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는 애정표현이 많을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상대방과 함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한 시간의 공유는 애정표현의 중요한 수단인데, 이러한 공유가 부부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Orthner, 1975), 배우자와 함께한 시간의 질과 양은 전체적인 부부만족도를 예측하는 요

인이었다(Hill, 1998; Snyder, 1979). 또한, 공유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대화나 의사소통행위가 결혼만족도를 증가시켰다(임승락, 권정혜, 1998).

또한, 우리의 신체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로,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것, 포옹, 키스 및 성관계 등과 같은 신체접촉은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다. 기혼자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 만족이 결혼생활의 만족과 직결되고(Marokoff & Gilliland, 1997), 전반적으로 성교의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만족도가 더 높았다(Zhou, 1993).

비록 애정표현행동이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닐 수 있다. 가령, 결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신혼기에는 매력은 높지만 애착은 낮은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매력은 낮아지는 반면 애착은 증가하기 때문에, 결혼만족을 신체적 매력으로 측정할 경우 낮아지지만 애착이나 안정감, 충실도 등으로 측정하면 증가한다(윤가현, 1998). 또한, 성인초기까지는 열정이나 성적 매력이 사랑의 중요 요인이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충실성이나 부드러움이 사랑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더 중요하다(Allgeier & Allgeier, 1991).

이러한 결과는 애정표현이 적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만족도가 낮은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애정표현과 관계만족의 관련성이 발달적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 커플을 대상으로 애정표현행동이 관계의 질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애정표현행동과 성격

성격은 개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체계 안에서 그의 특징적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역동적 조직으로(Allport, 1961), 남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정은, 최연실, 2002). 지금까지 성격적 특성과 이성 간의 사랑이 갖는 관련을 다룬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격과 사랑 유형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성격과 관계만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먼저, 기존 연구는 성격에 따라 사랑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령, 조은혜(1996)는 6가지 사랑 유형(Love Attitude Scale: LAS; Hendrick & Hendrick, 1986)이 Big Five 성격요인(Neo-Pi; Costa & McCrae, 1985)과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그 결과, 열정적 사랑은 외향성 및 개방성과 그리고 소유적 사랑은 개방성 및 신경증과 관련이 있었다. 반면에, 유희적 사랑은 신경증과 정적 상관이고 그리고 호감성 및 성실성과는 부적 상관에 있었다.

성격과 관계만족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특히 정서적 안정성과 외향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 및 호감성이 관계만족과 관련이 있었다(Lester, Haig & Monello, 1989; Rogers, 1999). 또한, Shackelford와 Buss(1996)는 기존의 연구를 개관하면서 호의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개방적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한 여성이 대체로 더 만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향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외향적일수록 관계만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외향성 집단이 내향성 집단보다 정적인 정서와 생활만족에서 더 높았으며(Costa & McCrae, 1980), 외향성이 행복감과 정적 상관을, 부정적 정서

와는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Chioqueta & Stile, 2005; Stewart, Ebmeier & Deary, 2005). 국내 연구에서도 긍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도는 외향성 집단이 만족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부적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이주성, 1991; 이은경, 2005; 조미랑, 2005).

이처럼 기존연구를 보면, 성격요인 중 외향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이성 간의 사랑과 크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남녀 간의 성격적 차이가 낭만적 사랑과 관련성이 있었다(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 요인이 애정표현행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연구문제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애정표현행동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지 그리고 애정표현행동이 낭만적 사랑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애정표현행동이 관계의 질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격특성 중 대인관계와 특히 관련성이 높은 친화성, 외향성 및 정서안정성이 애정표현행동과 갖는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측정변인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기존의 사랑의 변화에 대해 연구들을 볼 때, 시간에 따라 애정표현행동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결혼 전 성인초기 커플들의 경우 애정표현행동과 관계의 질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성격적인 요인도 애정표현행동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를 볼 때, 애정표현행동이나 성격적

차원에서 성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 법

연구대상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420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363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33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의 연령은 만 18세에서 만 29세로 평균연령은 21.9세($SD = 2.63$)였다. 현재 교제중인 대상자는 169명(50.9%)이었고 과거 교제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64명(49.1%)으로, 교제기간은 1개월에서 93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교제기간은 14.6개월($SD = 16.81$)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애정표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 80명에게 연인에게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기술하게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한경미, 1998; 홍대식, 1998)를 참고하여 대학생들로 하여금 주고받은 선물의 종류와 빈도, 스킨십의 정도와 빈도, 언어적 표현과 빈도, 이벤트의 종류와 빈도, 데이트 시 하는 활동 등을 기술하게 했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애정표현행동을 5가지 차원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즉, 언어표현(8문항, 예로, 최근 일주일간 “사랑한다”나 “좋아한다”는 말을 한다), 이벤트(5문항, 예로, 최근 1년간 ○○에게 예고

없이 꽃 배달이나 선물을 배달해준다), 선물(8 문항, 최근 3개월간 옷을 선물한다), 데이트 활동(6문항, 예로, 최근 한 달 동안 함께 영화를 본다) 그리고 스킨십(5문항, 최근 일주일간 연인과 포옹을 한다) 등이다. 이 때, 각 애정 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시간적 길이는 표현행동에 따라 달랐으며,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행동의 빈도를 평가하고, 각 문항이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Likert식 5점 척도에 평가했다. 중요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언어표현 .83, 이벤트 .76, 데이트 활동 .71, 선물 .86, 그리고 스킨십 .83이었다.

강진경(1996)은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형이론에 따른 열정, 친밀감, 책임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한국사회에 적합하게 표준화했는데, 그 결과 Sternberg의 Triangular Love Scale (STLS)에서 친밀감 12문항, 책임감 8문항 그리고 Davis와 Todd(1985)의 Relationship Rating Form(RRF)에서 열정에 관한 10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사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강진경이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Cronbach's α 산출한 신뢰도는 친밀감 .91, 열정 .84, 책임감 .90이었다. 참가자들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osta와 McCrae(1992)가 개발하고 민병모, 이경임과 안창규(1997)가 번역한 NEO 인성검사 단축형 (NEO-PI-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외향성, 정서 안정성 및 친화성에 해당하는 각 12문항씩 총 36문항을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로 측정한 신뢰도는 외향성 .80, 친화성 .72, 정서 안정성 .82이었다. 관계의 질을 서로에 대한 신뢰감과 관계만족도로 측정하였다. 신뢰감은 Rempel, Holmes와 Zanna (1985)가 개발한 신뢰감(Trust Scale) 척도 중 6

문항을 번안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70이었다. 관계만족도는 Davis와 Todd(1985)가 사용한 10문항을 번안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결 과

교제기간에 따른 애정표현행동의 변화

참가자들의 교제기간은 평균 14.6개월(SD = 16.81)이었으며 그 범위는 1개월-93개월이었다. 애정표현행동은 각 문항에 대한 애정표현의 빈도와 그 문항이 관계에 미치는 중요도를 곱한 점수 즉, 애정표현빈도×중요도/5로 계산하였다. 중요도를 반영한 이유는 애정표현행동에 따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평가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는 현재 교제 중인 대학생과 과거에 교제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참가했다. 이 두 집단 간에 애정표현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성차 또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애정표현행동에 대해 교제경험과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2(현재 대 과거) × 2(남성 대 여성)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기술통계치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언어표현에서 교제경험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해서, 현재 교제중인 학생이 과거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언어적 애정표현을 더 많이 했다, $F(1, 329) = 27.78, p < .001$. 이러한 교제경험에 따른 주효과는 데이트활동, $F(1, 329) = 7.96, p < .01$, 및 스킨십에서도 유의미해서, $F(1, 329) = 12.17, p <$

표 1. 애정표현행동의 기술통계치

애정표현행동 (측정단위)	남(N = 152)		여(N = 181)	
	현재(N = 80)	과거(N = 72)	현재(N = 89)	과거(N = 92)
언어표현(1주일)	6.91(6.96)	4.38(4.88)	6.94(8.59)	2.32(2.18)
이벤트(1년)	2.18(2.53)	2.42(2.47)	1.60(1.74)	1.10(1.34)
테이트활동(1개월)	4.71(3.67)	4.24(3.25)	4.66(3.31)	3.19(2.10)
선물(3개월)	.77(.99)	.91(.94)	.67(.84)	.55(.59)
스킨십(1주일)	4.43(5.63)	3.08(4.11)	3.96(6.54)	1.46(1.99)

.001, 현재 교제 중인 학생들이 데이트와 스킨십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이벤트, $F(1, 329) = 17.82, p < .001$, 및 선물, $F(1, 329) = 6.32, p < .05$, 차원에서 유의미해서,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이러한 애정표현을 더 많이 했다. 교제경험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종속측정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제기간에 따라 참가자들의 애정표현행동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교제 중인 학생과 과거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분리해서 각 집단별로, 교제기간을 예언변인으로 해서 각 애정표현행동을 준거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교제 중인 집단의 이벤트¹⁾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1) 회귀분석 결과, 1차($\beta = 2.85$ 즉, 교제기간이 증가할수록 이벤트도 증가하는 경향성), 2차($\beta = -2.93$ 즉, 교제기간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이벤트가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하는 경향성), 3차($\beta = 2.49$ 즉, 교제기간이 증가할수록 처음에는 이벤트가 증가하다가 중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고 나중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성) 및 4차($\beta = -2.19$ 즉, 교제기간이 증가할수록 이벤트가 증가, 감소, 증가 그리고 마지막에 감소하는 경향성) 성분이 모두 유의미했으며, 전체 설명 변량은 8%이었다.

애정표현행동은 두 집단 모두에서 교제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고, 애정표현의 전체점수 역시 교제기간에 따른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애정표현행동과 사랑, 관계의 질 및 성격과의 관계

먼저, 애정표현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에서 교제경험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현재 대 과거) x 2(남성 대 여성)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사랑의 모든 요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현재 교제 중인 집단이 과거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친밀감과 열정에서는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주효과분석을 한 결과, 과거경험에 기초한 여학생들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이 두 변인에서 낮았다. 관계신뢰도와 관계만족도에서는 현재 교제 중인 집단이 더 높았다. 또한, 관계만족도에서는 성별과 지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는데, 남자의 경우 교제경험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교제경험에

표 2. 사랑, 관계의 질 및 성격특질에 대한 기술통계치

변인	남		여		성별	F	상호 작용
	현재 (N = 80)	과거 (N = 72)	현재 (N = 89)	과거 (N = 92)			
사랑의 3요소							
친밀감	4.17(.61)a	3.96(.54)a	4.12(.58)a	3.58(.66)b	10.40***	32.35***	6.70**
열정	3.75(.61)a	3.56(.51)a	3.67(.63)a	3.06(.68)b	17.58***	34.61***	9.50***
책임감	3.90(.84)	3.12(.71)	3.74(.86)	2.68(.82)	11.23***	105.85***	2.62
관계의 질							
관계신뢰도	3.85(.68)	3.53(.61)	3.98(.61)	3.39(.62)	.00	43.04***	3.78
관계만족도	3.95(.74)ab	3.86(.61)a	4.15(.67)b	3.48(.79)c	1.34	24.26***	14.30***
성격특질							
외향성	3.58(.55)	3.59(.58)	3.59(.54)	3.52(.58)	.15	.24	.42
친화성	3.32(.44)	3.22(.56)	3.52(.46)	3.44(.43)	17.10***	2.73	.02
안정성	3.30(.53)	2.96(.63)	3.06(.62)	2.94(.59)	3.93*	12.11***	3.05

주. 모든 측정은 5점 척도 상에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측정 변인의 속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 친밀감, 열정 및 관계만족도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진 평균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

*** $p < .001$ ** $p < .01$ * $p < .05$

따라 관계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성격특질 차원에서 친화성과 안정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안정성의 경우 현재 교제 중인 집단이 과거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더 높았다.

교제기간에 따라 사랑의 3요소 및 관계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제경험에 따라 각각 단순상관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유사해서 궁극적으로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밀감($r = .15, p < .01$), 열정($r = .14, p < .05$) 및 책임감($r = .14, p < .01$)은 교제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교제기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신뢰도도 증가했지만($r = .18, p < .001$), 관계만족도는

교제기간과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애정표현행동이 Sternberg의 사랑의 3요소, 관계의 질 및 성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제경험에 따라 각각 단순상관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상당히 유사해서 궁극적으로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모든 종류의 애정표현은 사랑의 3요소와 정적 상관이 있어서, 애정표현을 많이 할수록 친밀감, 열정 및 책임감도 높았다. 또한, 모든 애정표현행동은 관계신뢰도 및 관계만족도와 정적 상관이 있어, 애정표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에 대한 신뢰와 만족 수준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몇몇 애정표현행동은 외향성과 정적

표 3. 애정표현과 사랑, 관계의 질 및 성격특질과의 상관

	언어표현	이벤트	데이트활동	선물	스킨십	전체
사랑의 3요소						
친밀감	.36***	.24***	.31***	.14*	.17**	.35***
열정	.42***	.28***	.33***	.20***	.35***	.46***
책임감	.39***	.17**	.20***	.10	.21***	.34***
관계의 질						
관계신뢰도	.32***	.16**	.23***	.11*	.13*	.29***
관계만족도	.42***	.22***	.38***	.19***	.22***	.42***
성격특질						
외향성	.04	.22**	.17**	.13*	.02	.11
친화성	.02	-.04	-.05	-.01	-.10	-.05
안정성	.06	.12*	.08	.08	.00	.07

*** $p < .001$ ** $p < .01$ * $p < .05$

상관이 있었지만, 친화성이나 안정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관련성에 현재 교제 중인 집단과 과거 교제 경험이 있는 집단 간에 특기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외향성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애정표현행동에서 이벤트와 선물은 남자가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논 의

본 연구는 교제기간에 따라 애정표현행동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애정표현행동이 Sternberg의 사랑의 3요소, 관계신뢰도와 관계만족도, 그리고 성격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인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교제기간에 따라 애정표현행동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면, Sternberg의 사랑의 3요소와 관계만족도는 교제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애정표현행동은 사랑, 관계의 질 및

교제기간에 따른 사랑의 변화

먼저,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커플들 간의 애정표현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애정표현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예비조사를 통해 이들이 하는 애정표현행동을 살펴본 결과, 언어표현, 이벤트, 선물, 데이트활동 및 스킨십 등 5가지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한경미, 1998; 홍대식, 1998)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5개의 차원이 대학생의 낭만적 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애정표현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은 앞으로 청년기의 낭만적 사랑을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발달적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가령, 청년기와 비교해서 노년기의 성과 사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할 때, 이러한 애정표현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애정표현행동이 교체기간에 따라 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애정표현행동은 교체기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며, 현재 교체 중인 학생이나 과거에 교체 경험이 있는 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교체기간에 따라 애정표현행동이 적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사랑의 삼각이론에 따른 연구들(Acker & Davis, 1992; Sternberg, 1986), 시간과 결혼만족도의 U자형 관계를 보고한 연구들(정현숙, 1996; Michael & Huston, 1985; White & Booth, 1986), 사랑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입장(Buss, 2004), 사랑 관련 생물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채정호, 2005) 등은 어느 정도 교체시간이 흐르면 애정표현행동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기존의 연구와 다른 한 가지 원인을 참가자들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교체기간에 따라 사랑의 3요소 및 관계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이성 간 교체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록 교체기간이 상당히 긴 커플도 있었지만, 평균 교체기간이 1년 2개월 정도로 시간에 따른 사랑의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교체기간이 충분히 긴 커플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거커플이 많은 서구의 연구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도 다를 수 있다. 실제 결혼은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인생사건이라는 점에서, 결혼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도 애정표현행동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결혼 후의 애정표현행동의 변화는 단지 교체기간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인생사건에 따른 복합적 효과라는 점이다. 따라서 애정표현행동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 관계에 있으면서 교체기간에서 다양한 커플과 결혼을 했으면서 교체기간에서 다양한 커플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집단별로 애정표현행동의 시간적 변화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교체기간과 결혼이 애정표현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정표현행동의 시간적 변화와 관계의 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을 뿐, 부정적 행동이 교체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지지 못했다. 교체기간에 따라 부정적 행동도 변화할 가능성 높고, 이러한 행동 또한 애정표현행동 못지않게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예로, 한덕웅, 1985). 특히, 결혼 후 자녀출산 후 결혼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결혼 후 애정표현행동 및 부정적 행동의 변화를 동시에 살펴보는 것은 관계의 역동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애정표현행동과 관계의 질

애정표현행동은 사랑의 3요소 및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관계신뢰도 그리고 관계만족도와 상당히 큰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표 3참조). 이러한 결과는 특정 애정표현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행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애정표현은 방식에 상관없이 낭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1과 2에서 보면, 현재 교제 중인 학생이 과거에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에 비해 애정표현행동 중 언어적 표현, 데이트행동 및 스킨십에서 그리고 사랑의 3요소와 관계의 신뢰도 및 만족도에서 더 높았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관계의 파탄이 애정표현행동과 친밀감과 열정 및 책임감 그리고 관계의 신뢰도와 만족도의 하락에 기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애정표현행동이 이러한 변인들과 큰 상관이 있음을 고려할 때, 애정표현행동이 적음으로써 사랑 등 여러 측면에서 관계의 질이 저하되고, 이것이 결국 관계의 파국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과거경험에 근거해서 보고한 학생들이 사실과는 달리 기억을 왜곡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가령, 그들은 파트너와의 이별을 합리화하거나 그에 대한 적절한 원인등을 찾는 과정에서 애정표현행동의 부족을 관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헤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실제 헤어진 커플들의 애정표현행동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성격적 요인 중에서 애정표현행동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외향성뿐이었으며, 그 관련성도 크게 높지 않았다. 표 2에서 보듯이, 현재 교제 중인 학생과 과거에 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 간에 외향성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애정표현을 하지 않는 성격 때문에 관계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말하자면, 애정표현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때 성격의 차이는 크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애정표현행동 중 이벤트와 선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애정표현 중 남녀차이가 없는 데이트활동 및 스킨십은 함께 하는 관계적인 행동이고 언어적 표현은 상당히 일상적인 행동인 반면, 이벤트와 선물은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드물고 특별한 행동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3요소에서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높았다. 이처럼 특별한 표현을 통해 여성 파트너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고 지금의 낭만적 관계에 더 몰입하는 남성의 행동은 진화론적인 입장(Buss, 2004)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여성은 상대 남자의 적합성을 보수적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검증해보는 반면, 남성은 상대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진경, 최혜경 (1996). 아동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과 성인기 사랑에서의 성차. *대한가정학회지*, 34(4), 161-174.
- 강진경, 최혜경 (2001).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 청소년기의 자아 개념, 성인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3), 1-24.
-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

-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여성*, 10(4), 497-524.
- 김중술 (1998). *새사랑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민병모, 이경임, 정재창 (1997). Neo 인성검사 (NEO-PI-R). PSI 컨설팅.
-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 이은경 (2005).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01). 애착에 따른 이성 간 지지행동의 차이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은, 최연실 (2002).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3), 137-153.
- 이주성 (1991). 외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승락, 권정혜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만족: 성차, 요구입장차이 및 성격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98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09-123.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 정민아 (2004) 청소년기의 이성간 사랑 유형 분석: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정현숙 (1996). 도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변화 패턴.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51-60.
- 조미량 (2005) 외향성 수준과 문화적 자기관 유형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혜 (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 사랑 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정호 (2005). 사랑 - KBS 감성과학 다큐멘터리.
- 최혜경, 강진경, 신수진 (1999). Sternberg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애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47-59.
- 한덕웅 (1985). 우정의 형성과 발전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2(2), 169-191.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12(2), 199-226.
- 한경미 (1998). 부부의 언어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가정과학회지*, 1(2), 1-11.
- Acker, M., & Davis, H. (1992).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 test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Relationships*, 9, 21-50.
- Allgeier, E., & Allgeier, A. (1991). *Sexual interactions (3rd ed.)*. Lexington, Massachusetts: D. C. Health & Co.
- Allport, G. W. (1961). *Patterns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Halt Rinheart.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NY: Holt, Rinehart, & Winston.
- Baxter, L. A., & Bullis, C. (1986). Turning points in developing romantic relationshi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 469-493.
- Berg, J. H., & McQuinn, R. D.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42-952.
- Buss, D. M. (2004).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 science of the mind*. Pearson Education, Inc.
- Cate, R. M., Long, E., Angera, J. J., & Draper, K. K. (1993). Sexual intercourses and Relationship developmen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2, 158-164.
- Chioqueta, A. P., & Stiles, T. C. (2005). Personality traits 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6), 1283-1291.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Four ways five factors are basic.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653-665.
- Davis, K. E., & Todd, M. J. (1985). Assessing friendship : Prototypes, paradigm cases and relationship assessment. In S. W. Duck & D. Perlman (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17-34).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Hazan, C., & Shaver, P. R. (1994). Sex and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 in personal relationships* (151-178). London: Jessica Kingsley.
- Hendrick, S. S. (1988). A genetic measur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3-98.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392-402.
- Hendrick, C., & Hendrick, S. S. (1988). Lovers wear rose colored glass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161-183.
- Hill, M. S. (1988).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427-451.
- Laster, D. Haig, C, & Monello, R. (1989). Spouses' persona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2), 253-254.
- Lin, Y. H., & Rusbult, C. E (1995). Commitment to dating relationships and cross-sex friendships in America and Chin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2(1), 7-26.
- Lloyd, S. A., Cate, R. M., & Henton, J. M. (1984). Predicting premarital relationship stability: A methodological refin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71-76.
- Lund, M. (1985).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commitment scales fr predicting continuity of 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3-23.
- Marokoff, P., & Gilliland, R. (1997). Stress, sexual functioning, and marital satisfaction. *J of Sex Research*, 30, 43-53.
- Murstein, B. I. (1976) *Who will marry whom? Theories and research in marital in choice*. New York: Springer.
- Orthner, D. K. (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91-102.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95-112.
- Rogers (1999). Marital satisfaction as it relates to similarity versus complementarity in personality dimension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B: The Sciences and Engineering*. 60(4B), 1917.
- Rubin, Z., (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265-273.
- Shackelford, T. K., & Buss, D. M. (1996). Betrayal and the design of the mind. In J. A. Simpson & D. T. Kenrick (Eds.) *Evolutionary social psychology* (pp. 73-107). Mahwah, NJ: Erlbaum.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813-823.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twart, M. E., Ebmeier, K. P., & Deary. I. J. (2005). Personality correlates of gappiness and sadness: EPQ-R and TPQ compar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085-1096.
- Surra, C. A., & Longstreth, M. (1990). Similarity of outcomes, interdependence, and conflict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01-516.
- White, L., Booh, A., & Edward, J. (1986). Children and marital happiness: Why the negative correl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7, 131-147.
- Zhou, M. (1993). A survey of sexual states of married, healthy, reproductive age women. *J of P & Human Sexuality*, 6(2), 15-28.
- 1 차원고접수 : 2007. 6. 27.
심사통과접수 : 2007. 9. 17.
최종원고접수 : 2007. 9. 26.

Behavioral Affective Expressions Among College Students in Romantic Relationship

Jiyeon Lee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research aims at examining (1) how behavioral affective expressions change over time, (2) how those expressions are related to romantic love, relational trustworthiness and satisfaction, and personality, and (3) if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ose variables concerned. For those purposes, data are collected from 333 undergraduates who have experienced at least one time romantic relationship. Results indicated that behavioral affective expressions did not change over time and yet three components of the triangular theory of love and relational satisfaction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period of romantic relations. Also, behavioral affective expression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three components of love, relational trustworthiness and satisfaction, and extroversion of personality traits. Finally, there were gender differences in some of affective expressions and personality traits. Tho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theories and empirical findings of relational changes and stabilities.

Key words : *The period of romantic relations, behavioral affective expressions, romantic love, quality of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gender differences.*